

名詞形語尾 體系的 變化에 대하여*

梁 正 昊

(德成女大 教授)

要約 및 抄錄

本稿는 名詞形語尾 體系的 歷史的 變化 過程에 대한 高찰을 目的으로 한다. 이러한 高찰은 한글 文獻資料가 존재하는 15세기의 共時的 體系를 記述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16세기를 거쳐 17세기 以後까지 어떠한 變化를 보이는가에 대해 그 過程을 記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기’를 명사형어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음’과 ‘-기’ 이외에 명사형어미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形態, 즉 ‘-디’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15세기 名詞形語尾 體系를 세우고, 그 체계를 構成하고 있는 個別 名詞形語尾 ‘-음’, ‘-디’, ‘-기’의 세 形態 사이에는 어떤 關係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가 어떠한 變化 過程을 거쳐 現代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도 기술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의 消滅, ‘-음’의 縮小, ‘-기’의 擴大라는 變化의 過程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 핵심어 : 名詞形語尾, 共時的 體系, ‘-디’의 消滅, ‘-음’의 縮小, ‘-기’의 擴大

I. 序 論

現代國語의 名詞形語尾로는 ‘-기’와 ‘-ㄴ’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訓民正音의 創製와 더불어 국어의 전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15세기 한글 자료에서는 명사형어미 ‘-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시기의 名詞形語尾로 지위가 확고한 것은 오직 ‘-음’뿐이고, ‘-기’는 頻度도 낮고 한정된 環境에서만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나타나는 分布의 制弱 등으로 名詞形語尾로서의 지위가 매우 의심스럽다.

本稿는 名詞形語尾 體系의 歷史的 變化 過程에 대한 考察을 目的으로 우선 15세기의 명사형어미 체계를 共時的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특히 ‘-기’를 名詞形語尾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음’과 ‘-기’ 이외에 名詞形語尾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형태, 즉 ‘-디’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15세기의 名詞形語尾 體系가 확정되면 16세기에 그러한 체계가 어떻게 變化하였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16세기는 文獻資料에서 ‘-기’의 出現 頻度가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15세기와는 사뭇 다른 체계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名詞形語尾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음’, ‘-디’, ‘-기’의 세 종류라면 이 세 形態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것이다.

17세기에는 문헌자료에서 ‘-디’가 거의 사라지고, 오랜 역사를 가진 명사형어미 ‘-음’이 점차로 分布가 制限되는 반면, ‘-음’에 비해 새로운 형식인 ‘-기’는 상대적으로 분포가 매우 넓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로도 계속되어서 ‘-기’가 ‘어렵-, 쉽-, 동-, 슬흐-’ 등과 활발하게 連結되는 반면, ‘-음’은 그러한 連結에 상당한 制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에 ‘-음’, ‘-디’, ‘-기’와 두루 연결될 수 있었던 ‘어렵-’과 같은 用言에 대해 17세기 이후 문헌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名詞形語尾의 이러한 變化 過程에 따라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후의 세 시기를 차례로 검토하는 것으로 構成된다.

Ⅱ. 15세기의 名詞形語尾 體系

15세기에 명사형어미 ‘-음’은 分布에 制約이 없고 文獻資料에서 확인되는 頻度도 높기 때문에 명사형어미로서의 지위를 의심할 수 없다. 다만 ‘-음’이 매우 生産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명사형어미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15세기 문헌자료에 나타나는 形式 가운데 名詞形語尾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형식으로는 ‘-기’와 ‘-디’가 있다.

- (1) 應은 맛당홀씨니 人天々 供養을 바도미 맛당타 흐논 마리라(『月釋』

2:20a)

(2) 그 後에야 놀애 브르며 춤 츠며 룡담^호야 남진어르기를 ^호며(『月釋』 1:44b)

(3) 므술히 멀면 乞食^호디 어렵고(『釋詳』 6:23b)

(1)은 ‘-옴’이 사용된 예인데, ‘-옴’과 통합된 動詞 ‘받-’이 ‘人天入 供養^옴’이라는 名詞句를 目的語로 취하고 있으므로 ‘人天入 供養^옴 바도미’ 전체는 名詞節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옴’은 名詞形語尾임이 분명하다. (2)는 ‘-기’가 사용된 예인데, ‘남진어르기’의 ‘남진’을 動詞 ‘어르-’의 目的語라고 본다면 ‘남진 어르기’는 名詞節이 되고, 이때의 ‘-기’는 名詞形語尾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가 ‘남진어르-’라는 複合動詞에 연결된 것이라면 이때의 ‘-기’는 명사형어미가 아니라 派生接尾辭일 가능성도 있다. (3)은 ‘-디’가 사용된 예인데, 形容詞 ‘어렵-’ 앞에 나타나는 ‘-디’는 現代國語에서는 ‘-기’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5세기의 이러한 ‘-디’도 名詞形語尾일 가능성이 있다.

1. 派生接尾辭 ‘-기’

15세기의 ‘-기’는 現代國語의 명사형어미 ‘-기’와 동일한 形態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사형어미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現代國語와 동일한 形態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機能이나 文法範疇도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국어와의 聯關性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15세기 共時的인 관점에서 ‘-기’의 文法範疇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15세기 문헌자료에서 확인되는 ‘-기’ 통합형을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4) 가. 크기, 부르기, 여희여나기

나. 글^호기, 丹青^호기, 말습^호기, 벼슬^호기, 藥材^호기, 畋獵^호기, 일^호기, 절^호기, 祭^호기, 出家^호기

다. 갈쁘기, 그림그리기, 글비호기, 글스기, 남진어르기, 물보기, 받^호노호기, 부터供養^호기, 춤츠기, 활소기

(4)에 제시된 예는 모두 23개인데, ‘-기’에 先行하는 用言의 성격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4가)는 ‘-기’에 用言 어간만이 통합된 경우로, 主述 構造를 갖춘 名詞節로 보기 어려운 예들이다. (4나)는 ‘-기’에 用言 語幹만이 통합된 예라는 점에서 (4가)와 같지만, 用言 語幹의 내부 구조가 ‘體言+ㅎ-’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글ㅎ기’의 경우에 ‘글ㅎ-’를 하나의 用言으로 본다면 이 예도 (4가)와 같이 名詞節로 보기 어려운 예가 되겠지만, ‘글’을 ‘ㅎ-’의 目的語로 본다면 그래서 ‘글 ㅎ기’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는 구조로 본다면 名詞節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體言과 ‘ㅎ-’ 사이에 目的格助詞를 비롯한 어떤 助詞도 개입되지 않는 점을 볼 때 前者일 가능성이 크다. (4다)는 ‘-기’에 先行하는 成分을 명사와 동사가 통합된 複合動詞로 보느냐, 目的語와 敍述語로 이루어진 節 構成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의 文法範疇가 달라진다. 先行하는 名詞가 後行하는 動詞의 의미상 目的語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기’가 통합된 構成 전체를 節 構成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先行하는 名詞에 목적격조사를 비롯한 어떠한 조사도 결합된 예가 없고 둘째, 先行하는 名詞가 冠形語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없으며 셋째, 後行하는 動詞나 動詞句 전체를 수식하는 副詞語가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이러한 근거들은 (4다)의 構成들이 名詞節이 아니라는 것을 지지한다. (4다)의 예들이 名詞節이 아니라면 (4나)의 예들에 대해서도 굳이 명사절 구조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4)의 예들은 모두 名詞節이 아니라 名詞라고 결론하게 된다.

(4)의 예들이 名詞임을 지지하는 몇 가지 근거가 더 있다. 우선 分布가 制限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15세기에 ‘-기’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構成의 수가 위에서 본 것 같이 23개에 불과하다면 그 分布가 얼마나 制限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아주 生産的으로 名詞形語尾로 기능하던 ‘-음’이 특별한 제한 없이 用言 語基에 통합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기’가 보여주는 패러다임 상의 수많은 빈칸들은 ‘-기’를 活用語尾로 보기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기’ 앞에는 어떠한 先語末語尾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 ‘-기’가 名詞形語尾라면 先語末語尾가 결합되지 못할 이유가

2) 이러한 사실은 名詞形語尾 ‘-음’이 先語末語尾와 통합된 많은 예를 보여주는 것

전혀 없다. ‘-기’ 앞에 형태를 가지지 않는 過去時制 先語末語尾가 統合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그럴 可能性이 없다. 무엇보다 ‘-기’ 앞에 現在時制나 未來時制의 形態素가 나타나지 않는데 굳이 過去時制 形態素만은 있다고 假定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설령 과거시제 형태소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가 統合된 형식에서 過去의 意味가 파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다. ‘-기’ 통합형에서 과거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것이 ‘-기’의 의미나 기능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의 本質의인 意味나 機能이 過去時制의 意味와 衝突된다면 ‘-기’는 과거시제와 共起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형태가 없는 과거시제 형태소를 억지로 가정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끝으로 現代國語에서 名詞形語尾 ‘-기’가 敬語法이나 時制 관련 형태소들과 통합하는 예들은 現代國語의 ‘-기’와 中世國語의 ‘-기’ 사이에 範疇的인 差異가 存在함을 잘 보여준다. 가령 ‘가시기, 갔기, 가겠기’ 등이 가능하고 ‘가시었기, 가시겠기’ 등이 가능한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선어말어미와 統合되는 현대국어의 ‘-기’와 아무런 선어말어미와 統合되지 않는 中世國語의 ‘-기’를 동일한 範疇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기’ 앞에 어떤 先語末語尾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가 派生接尾辭라는 唯一하고 決定的인 증거는 아니지만, 派生接尾辭 앞에 先語末語尾가 올 수 없다는 派生의 一般的인 特性에 잘 부합되는 事實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

‘-기’에 先行하는 用言의 語幹 末품이 모두 母音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活用語尾가 先行하는 用言의 語幹 末품이 母音인 경우에만 統合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 活用語尾는 온전한 活用語尾가 아니라 한 活用語尾의 異形態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다. 즉 語幹 末품이 子音인 用言에 統合될 수 있는 異形態를 가진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와 異形態 관계에 있는 名詞形語尾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5세기에 子音으로 끝나는 用言에 연결되는 명사형어미는 확인할 수 없다. 名詞形語尾 ‘-음’의 경우에는 결코 그런

分布의 制限을 보이지 않으며, 예 (3)에서의 ‘-디’를 名詞形語尾라고 할 때, 이 ‘-디’ 역시 ‘-기’의 異形態로 볼 수 없는 分布를 보인다. 즉 ‘-옴’과 ‘-디’는 先行하는 語幹의 末音에 따른 交替를 전혀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기’의 異形態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는 名詞形語尾가 아니다.

‘-기’가 名詞形語尾가 아니라면 名詞를 派生시키는 接尾辭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기’가 명사형어미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그대로 ‘-기’가 派生接尾辭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즉 ‘-기’가 통합된 構成은 節 構成이 아니라는 점, ‘-기’가 통합되는 用言의 수가 극도로 制限되어 있는 점, ‘-기’ 앞에 어떠한 先語末語尾도 올 수 없다는 점 등은 ‘-기’가 派生接尾辭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기’가 語幹 末音이 母音인 用言에만 연결될 때 語幹 末音이 子音인 用言에 연결되는 名詞派生接尾辭를 확인하는 일이다. 15세기 자료가 아니긴 하지만 김완진(1976:123~128)에서 『翻譯老乞大』에 나타나는 ‘-기’와 ‘-이’가 한 形態素의 異形態 관계에 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5) 가. 밥머기, 글이피/글입피, 고기붓기, 물기리

나. 셔품쓰기, 년구헛기, 글사김헛기, 글외오기, 두의티기, 뒤보기

(5)는 김완진(1976)에서 제시된 예인데, (5가)는 子音으로 끝난 用言 語幹에 ‘-이’가 통합된 예들이고, (5나)는 母音으로 끝난 用言 語幹에 ‘-기’가 통합된 예이다. ‘-이’와 ‘-기’가 동일한 意味·機能을 가지면서 相補的 分布를 보이므로 이 두 形態는 한 形態素의 異形態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15세기에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6) 꺾불기, 꺾기, 글지시, 기리, 녀름지시, 더뵈, 머리갓기, 모심기, 피사리, 밥머기, 아기나히, 우숨우시, 이바디, 죽사리, 하리, 헛도디

(6)은 用言 語幹에 ‘-이’가 통합되어서 名詞가 派生된 예들인데, 語幹의 末音이 모두 子音이다. 앞의 예 (4)에서 ‘-기’가 母音으로 끝나는 用言 語幹에만 통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와 ‘-기’가 機能이 같고 相補的 分布를

보이므로 한 形態素의 異形態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이’가 名詞派生接尾辭라는 것에 異見이 없다면 ‘-기’도 名詞派生接尾辭임이 분명하다.

2. 名詞形語尾 ‘-디’

15세기 국어에서 나타나는 ‘-디’에는 두 종류가 있다. 現代國語의 ‘-기’로 이어지는 것이 한 가지이고, ‘-지’로 이어지는 것이 다른 한 가지이다.

(7) 가. 먹술히 멀면 乞食히디 어렵고(『釋詳』 6:23b)

나. 하 갓가북면 조티 묻히리니(『釋詳』 6:23b)

(7가)는 ‘어렵-’ 등의 일부 用言³⁾ 앞에 사용되는 ‘-디’의 예를 보인 것으로, 現代國語에서 ‘-기’로 나타나는 예이다. (7나)는 否定語⁴⁾ 앞에 사용되는 ‘-디’의 예를 보인 것으로, 現代國語에서 ‘-지’로 나타나는 예이다.

(7가)에 나타나는 ‘-디’는 現代國語에서 名詞形語尾 ‘-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의 ‘-디’를 명사형어미로 처리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다음과 같은 構文도 이러한 처리를 뒷받침한다.

(8) 부터 맞나미 어려보며 法 드로미 어려보니(『釋詳』 6:10b)

(8)은 (7가)와 같이 ‘어렵-’이 사용된 구문인데, ‘-디’가 아니라 ‘-옴’이 나타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5세기의 ‘어렵-’은 ‘-디’와 ‘-옴’을 모두 취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인데, 각 예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아도 별 문제가 없다.

(7') 가. 먹술히 멀면 乞食호미 어렵고

(8') 부터 맞나디 어려보며 法 듣디 어려보니

3) 예로 든 ‘어렵-’ 외에 形容詞 ‘슬히-, 동-, 새롭-’과 動詞 ‘붓그리-, 아천-’ 앞에도 ‘-디’가 나타난다.

4) 예로 든 ‘말-’ 외에 ‘아니히-’와 ‘묻히-’ 앞에도 ‘-디’가 나타난다.

(7'가)는 (7가)의 '-디'를 '-옴'으로 바꾸어 본 것이고, (8')은 (8)의 '-옴'을 '-디'로 바꾸어 본 것인데, 文法性에 문제가 없고⁵⁾ 語尾 交替 이전과 이후에 意味의 차이가 크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名詞形語尾 '-옴'으로 交替해서 동일한 構文을 생산할 수 있는 '-디'를 명사형어미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⁶⁾

(7나)에 나타나는 '-디'는 現代國語에서 連結語尾 '-지'에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連結語尾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인 듯하다. 하지만 다음 예문은 이러한 처리의 妥當性에 의문을 제기한다.

(9) 말다히 脩行호물 묻히니(『釋詳』 19:25b)

(9)는 否定語 '묻히-' 앞에 '-디' 대신 '-옴'이 사용된 예인데, '어렵-' 構文에서와 마찬가지로 否定語 앞에서도 '-디'와 '-옴'이 자연스럽게 交替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否定語 '말-' 앞에서도 '-디'는 다른 名詞形語尾와 자연스럽게 交替될 수 있었다.

(10) 가. 이 想흥 제 雜 보물 말오(『月釋』 8:20b)

나. 열 가짓 戒는 산 것 주기디 마롬과 도죽 마롬과 姪亂 마롬과 거
죽말 마롬과 수을 고기 먹디 마롬과 모매 쥬 기름 브르며 花鬘

5) 15세기 국어 문장에 대해 直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8')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에서 文法性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디'의 分布가 워낙 制限되어 있는 데다가 그나마 '-디'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어렵-' 앞에서도 '-디'보다 '-옴'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8')이 다소 어색하지 않은가 한다.

6) 名詞形語尾 '-옴' 다음에는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해 '-디' 다음에는 그런 예가 없다. '-디'를 '-ㄷ'과 '이'로 분석하고 이때의 '이'를 조사로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共時的으로 적절한 처리는 아니다.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는 '-ㄷ'을 名詞形語尾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문제고, 否定語 앞에서 나타나는 '-디'는 주격이 아니라 목적격으로 이해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 否定語 앞에서 나타나는 '-든, -돌, -ㄷ란' 등을 고려할 때 기원적으로 'ㄷ'라는 形態와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는 있겠지만 共時的으로는 '-디' 전체를 하나의 語尾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璿珞 빚이기 마롬과 놀애 춤 마롬과 노꾼 平床에 안씨 마롬과
時節 아닌 저귀 밥 먹디 마롬과 金銀 보비 잡디 마롬과라(『釋詳』
6:10b)

(10가)는 ‘-디’와 ‘-옴’이 交替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10나)는 ‘-디’와 ‘-기’가 交替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⁷⁾

否定語 앞에서 ‘-디’와 다른 名詞形語尾가 交替되는 현상을 文面대로 이해한다면 이때의 ‘-디’ 역시 ‘어렵-’ 앞에 나타나는 ‘-디’와 마찬가지로 名詞形語尾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있다.

(11) 가. 위 안햇 ㄴ물홀 金玉을 아나 가도 뼈곰 키요몰 흐디 못흐리로다
(『杜初』 10:25b)

나. 위 안햇 ㄴ물홀 金玉을 아나 가도 뼈곰 키요몰 못흐리로다

예문 (11)은 『杜詩諺解』 初刊本에 나오는 ‘못흐-’ 構文과 거기서 ‘흐디’를 생략해 본 예이다. 앞에서 검토한 否定文의 경우에는 (11가)가 아니라 (11나)와 같은 형식이었는데, 이 예에서는 名詞形語尾 ‘-옴’과 否定語 ‘못흐-’ 사이에 ‘흐디’가 개재해 있다. ‘흐디’가 있거나 없거나 文法性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1)의 두 문장이 모두 文法的인 文章이고 意味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11나)는 (11가)에서 ‘흐디’를 생략함으로써 생성된 문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다른 否定文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가정할 수 있다.

(9') 말다히 脩行호몰 흐디 못흐니

7) 15세기에 否定語 앞에 ‘-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 예가 唯一한 듯하다. 단순히 ‘-디’의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지, 아니면 文面대로 이미 ‘-기’가 名詞形語尾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면 文語에서와는 달리 口語에서는 ‘-기’가 名詞形語尾로 어느 정도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듯하다. 否定語 앞에서 ‘-기’가 나타나는 현상이 현대 고흥 방언에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배주채(1998)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0') 가. 이 想흥 제 雜 보물 ㅎ디 말오

나. 열 가지 戒는 산 것 주기디 마롬과 도죽 마롬과 姪亂 마롬과 거
 족말 마롬과 수을 고기 먹디 마롬과 모매 香 기롬 브르며 花鬘
 瓔珞 빚이기 ㅎ디 마롬과 놀애 춤 마롬과 노곤 平床에 안씨 마
 롬과 時節 아닌 저기 밥 먹디 마롬과 金銀 보비 잡디 마롬패라

앞에서 검토한 (9)와 (10)의 문장들은 원래 (9')과 (10')에서와 같은 형식이었는데 밑줄 친 'ㅎ디'가 생략됨으로써 생성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정리하자면 否定語 앞에 나타나는 '-디'를 '-옴'과 交替되는 것으로 보아 名詞形語尾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否定語 앞에 '-디'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을 '-디'가 생략된 문장으로 보고 '-디'를 連結語尾로 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주어진 셈이다. 前者의 해석을 따르면 '어렵-' 앞에 나타나는 '-디'와 否定語 앞에 나타나는 '-디'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利點이 있고, 後者의 해석을 따르면 모든 부정문에서 否定語가 連結語尾 '-디'를 취한다는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利點이 있다.⁸⁾ 장단점이 있지만 잠정적으로 後者의 해석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⁹⁾ 특히 (11)과 같은 예에 대해 설명력이 크고, 15세기 국어의 連結語尾 '-디'가 現代國語의 連結語尾 '-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기에도 유리하다.

Ⅲ. 16세기의 名詞形語尾 體系

16세기는 15세기와 함께 後期中世國語 시기에 해당하면서 많은 문법 부분에서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 名詞形語尾 體系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機能이나 形態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16세기는 中世國語 시기에서 近代國語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단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8)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10')의 예에서 '도죽 마롬'과 같이 名詞 다음에 바로 否定語가 나오는 경우에도 '도죽 ㅎ디 마롬'과 같은 構文으로 복구할 수 있을 듯하다.

9) 고영근(1987:127)에서 形容詞 '어렵-', '슬하-', '동-' 앞에 쓰이는 '-디'를 명사형 어미라 하였으나 부정문에 나오는 '-디'는 연결어미로 처리하였다.

서 15세기와 差異를 드러내기도 한다. 명사형어미 체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 가운데 하나는 15세기에 派生接尾辭로 기능하던 ‘-기’가 16세기에도 여전히 그런 기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명사형어미로 기능하는 새로운 ‘-기’가 出現하게 된다는 점이다.

1. 名詞形語尾 ‘-기’

16세기에도 名詞形語尾로는 주로 ‘-옵’이 사용되었고, 15세기에 ‘어렵-’ 등의 일부 用言 앞에 나타나던 ‘-디’도 名詞形語尾로서의 機能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12) 가. 부모를 나토와 내요미 효도의 므초미니라(『飜朴』 上:50b)

나. 이 므리 엇디 이리 잡디 어려우뇨(『飜老』 上:45b)

(가)는 名詞形語尾 ‘-옵’의 예이고, (나)는 名詞形語尾 ‘-디’의 예로 15세기의 명사형어미와 形態나 機能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16세기 文獻資料에 나타나는 名詞形語尾 전체의 分布를 검토해 보면 15세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13) 가. 先生이 슈고로이 받 가운데 살오 벼슬흐며 죽 투기를 즐겨 아니
흐느니(『飜小』 9:91b)

나. 씨드라도 이뵈 뉘웃기 어려우니라(『小諺』 5:18a)

(13)은 ‘-옵’과 ‘-디’ 이외에 새로운 名詞形語尾 ‘-기’가 사용된 예이다. 15세기라면 (가)는 ‘벼슬흐며 죽 투기’ 대신 ‘벼슬흐며 죽 토말’, (나)는 ‘뉘웃기 어려우니라’ 대신 ‘뉘웃디 어려우니라’로 나타났을 것이다. 새로운 名詞形語尾 ‘-기’의 出現으로 15세기까지 ‘-옵’과 ‘-디’가 나타나던 環境을 부분적으로 ‘-기’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결국 16세기에는 名詞形語尾로 기능하는 形態素의 수가 ‘-옵’, ‘-디’, ‘-기’의 셋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옵’과 ‘-디’의 分布는 15세기에 비해 좁아지게 되었다.

- (14) 가. 그를 對答호미 어렵도다(『杜初』 9:26a)
 나. 오늘 비 오니 정히 바둑 두미 도토다(『鰲朴』 22b)
 다. 그 나문 사름몬 이대 주구미 쉽디 못흐니라(『鰲小』 10:11b)
- (15) 가. 이 므리 었디 이리 잡디 어려우뇨(『鰲老』 上:45b)
 나. 내 몰래라 므스거지 가져가디 도홀고(『鰲老』 下:66a)
- (16) 가. 씨드라도 이뭇 뉘웃기 어려우니라(『小諺』 5:18a)
 나. 몰 고티기 도흐면(『鰲朴』 43a)
 다. 그 初는 알기 어렵고 그 上은 알기 쉬우니 本과 末이라(『周易』 6:28a)

위의 예들은 16세기에 ‘-옴’, ‘-디’, ‘-기’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14)는 ‘-옴’의 예로, 頻度數는 15세기에 비해 낮아졌지만 ‘어렵-, 쉽-, 뚫-’ 등 여전히 여러 用言과 生産的으로 呼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는 ‘-디’의 예인데, ‘-옴’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용 빈도 자체는 낮아졌지만 아직도 여러 用言과 呼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쉽-’ 앞에 ‘-디’가 나타나는 용례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것은 15세기로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다. (16)은 ‘-기’의 예인데, 15세기에 없던 形態가 새로이 등장하여 여러 用言과 두루 呼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기’가 名詞形語尾로서의 機能을 確立하고 分布를 擴大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옴’과 ‘-디’가 두루 나타나는 ‘어렵-’과 ‘뚫-’은 물론이고, ‘-디’가 나타나지 않던 ‘쉽-’에서도 ‘-기’가 나타나는 것을 (16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옴’과 ‘-디’, 특히 ‘-디’가 15세기에 비해 制限된 分布를 보이는 것에 비해 ‘-기’는 새로 나타난 形態이면서도 폭넓은 分布를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2. 名詞形語尾 體系의 調整

16세기의 名詞形語尾 體系는 ‘-옴’, ‘-디’, ‘-기’의 세 形態로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⁰⁾ 하지만 ‘-옴’은 적어도 前期中世國語 시기부터 名詞形語尾로 사용되

10) ‘-기’가 名詞形語尾 體系 내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는 다소 異見이 있다. 서은아(1999 / 2003)은 本稿에서와 같이 16세기로

던 것이고, ‘-디’는 15세기에 名詞形語尾로 사용되었으며 ‘-기’는 16세기에 비로소 名詞形語尾로 사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이 形態들이 體系 내에서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15세기를 共時的으로 검토한다면 ‘-옴’이 매우 生産的인 語尾였던 반면에 ‘-디’는 매우 制限된 用言 앞에서만 사용되는 語尾였던 것이다. 열세에 있던 ‘-디’는, ‘-옴’과 변별되는 意味·機能을 가지고 ‘-옴’이 나타나는 환경에까지 分布를 확대해 나가거나, 적어도 ‘-디’가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옴’과 辨別되는 意味·機能을 가지고 特化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消滅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15세기의 共時的인 상태만으로는 將次的 변화 가능성을 어느 쪽으로든 짐작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16세기에 보이는 名詞形語尾 體系的 양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디’가 15세기와 비슷한 정도의 意味·機能과 分布를 보이고, 새로운 名詞形語尾 ‘-기’가 追加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두 번째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名詞形語尾 體系的 歷史的 變化 過程을 고려하면 간단하게 결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17세기 이후로 ‘-디’는 消滅의 길을 가게 되고, ‘-디’가 나타나던 자리에는 ‘-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고려할 때 15세기의 共時的 狀態를 유지하면서 16세기에 ‘-기’라는 새로운 名詞形語尾 하나가 목록에 추가된 변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디’와 ‘-기’ 사이에는 좀더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입장은, 15세기의 派生接尾辭 ‘-기’가 機能 변화를 겪음으로써 명사형어미로 발전하였다는 기존의 暗默的인 認識을 否定하는 것이다. 派生接尾辭로부터 名詞形語尾로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15세기에 극단적으로 限定된 用言에 결합되어 새로운 單語를 生成하던 派生接尾辭 ‘-기’가 16세기에 와서 生産性이 높은 活用語尾로 변화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기

보고 있고, 이현규(1984), 홍운표(1995)는 17세기, 채완(1979), 정주리(1995)는 18세기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16세기에 이미 ‘-기’가 名詞形語尾로 사용된다고 하는 점은 의심할 수 없다. 다만 機能이나 分布 면에서 본격적인 명사형어미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時期가 언제인가 하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왕에 ‘-디’라고 하는 名詞形語尾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의 分布가 넓어지는 대신 文法範疇가 다른 派生接尾辭를 명사형어미로 轉用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로, 派生接尾辭 ‘-기’가 名詞形語尾 ‘-기’로 변화하였다는 설명은 形態 上의 同一性에 기반한 설명이지만 派生과 活用이라는 機能的인 差異를 輕視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새로운 名詞形語尾 ‘-기’의 起源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기능면에서는 기존의 名詞形語尾 ‘-디’와 관련되고 형태면에서는 名詞派生接尾辭 ‘-기’와 관련되어 있는 점은 분명하지 않은가 한다. 즉 16세기의 ‘-기’는 名詞派生接尾辭와 名詞形語尾의 두 종류로 구분되어야 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16세기의 名詞派生接尾辭로는 ‘-기’와 ‘-이’가 異形態 관계에 있게 되고, 名詞形語尾로는 ‘-기’와 ‘-디’가 異形態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기’와 ‘-디’는 排他的 分布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形態素 概念 아래에서는 異形態 관계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共時的인 관점에서의 형태소 개념이 역사적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논의의 편의 상, 양정호(2004: 7~8)에서 排他的 分布와 相補的 分布의 개념에 대해 論議하는 데 이용한 主格助詞의 예를 옮겨 오기로 한다.

- (17) 가. 어미가 즉시 손으로 입 안흔 쓰서 조초리 흐면(『痘瘡』 2a)
 나. 주근 지아비가 늦또다 흐고 인흐여 괴절흐여 죽거늘(『東國新續烈女』 5:42b)
 다. 그 넙자가 감지 아니흐기의 마지 몬흐여 내가 무려 주게 되어서 니(『隣語』 4:10a)
 라. 허가 니에 다딜넛고(『增修無冤錄諺解』 2:14b)
- (18) 가. 말이 분뵈 잇느냐(『馬經』 上:1a)
 나. 굴너지 늑는 톨기늘 닛코 나는 톨기 괴닌을 닛코(『馬經』 上:1b)

(17)에서 보듯이 17세기 이후 자료에서 主格助詞로는 舊形인 ‘이’ 이외에 新形인 ‘가’가 母音으로 끝난 體言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하지만 이러한 分布가 완전히 자리잡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했음을 (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主格助詞 ‘가’가 新形으로 등장한 17세기 이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母音으로 끝난 體言 아래에 주격조사 ‘이’와 ‘가’가 隨意的으로 같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意味가 같은 두 形態가 同一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歷史적으로 分布를 서로 調整하는 過程에 있기 때문이다. 한 形態素의 異形態가 어떤 환경에서도 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排他的 分布라고 할 때 17·18세기의 ‘이’와 ‘가’는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 않으므로 두 形態를 異形態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形態素의 異形態가 나타나는 環境의 sum에 해당 형태소가 나타날 수 있는 環境全體와 一致하는 것을 相補的 分布라고 하고,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두 形態를 異形態 關係에 있는 것으로 記述한다면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¹²⁾

한 形態素의 異形態들이 歷史적인 變化的 過程에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排他的이지 않지만 相補的인 分布를 보이는 상태를 거쳐 배타적이면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16세기의 ‘-기’와 ‘-디’는 두 形態의 分布를 합쳐야만 15세기의 ‘-디’ 한 형태가 담당하던 機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相補的인 分布를 보이지만 동일한 환경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排他的 分布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筆者는 意味·機能이 같은 이 두 形態가 역사적 변화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타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形態素의 異形態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 11) 17세기 이후 主格助詞 ‘가’가 모음 아래에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기는 해야겠지만 17세기에 ‘가’가 일차적으로 出現하기 시작한 環境은 ‘i’ 모음과 ‘j’ 아래로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그밖의 모음 아래에서 ‘가’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8세기 이후인 듯하다. 예 (1)의 (다, 라)는 18세기 이후의 ‘가’ 출현을 보여주는 예이다.
 - 12) 물론 둘 이상의 形態가 한 形態素의 異形態 關係에 있다고 기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意味의 同一性이 前提되어야만 한다. 문제가 되는 ‘-디’와 ‘-기’의 경우에도 分布의 문제 이전에 意味의 同一性 문제가 先決되어야 한다. 筆者는 主格助詞 ‘가’가 ‘이’에 대해 新形인 것처럼 名詞形語尾 ‘-기’가 ‘-디’에 대해 新形이므로 두 형태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歷史적으로 ‘-기’가 ‘-디’의 後代形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두 形態의 意味의 同一性도 자연스럽게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16세기 名詞形語尾 목록에는 15세기의 ‘-음’과 ‘-디’ 외에 ‘-기’라는 形態가 추가되었지만, 그 體系에 있어서는 ‘-디’의 異形態 하나가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6세기 名詞形語尾 體系는 15세기와 마찬가지로 ‘-음’과 ‘-디’로 이루어진 체계이고, ‘-음’이 ‘-음’ 등의 異形態를 가지는 것처럼 ‘-디’는 ‘-기’라는 이형태를 가진다고 기술해야 한다.

Ⅳ. 近代國語 이후의 名詞形語尾 體系

1. 名詞形語尾 ‘-기’의 擴大

17세기 이후 名詞形語尾 體系의 변화는 ‘-기’의 分布의 擴大로 정리할 수 있다. ‘-기’의 분포가 확대된다는 것은 우선 異形態 관계에 있는 ‘-디’의 分布가 縮小되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음’의 분포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15세기와 16세기에 ‘-디’를 취하던 여러 用言 가운데 ‘어렵-’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9) 가. 사름으로 히려곰 行호미 어려오니(『家禮』 7:31b)

나. 내 子孫이 진실로 能히 仁后로 뼈 根本을 삼으면 三代에 가미 어렵디 아니하리라(『御內』 2:83b)

(20) 가. 병이 심흔 자는 곳티기 어렵고(『馬經』 下:34b)

나. 밧씨 싣흔면 돈기 어렵고 안히 허흔면 더데 짓씨 어려우니라(『痘瘡』 上:56b)

다. 혹 夫ㅣ 멀리 가서 오기 어렵거든(『女訓』 下:5a)

(19)는 ‘어렵-’ 앞에 名詞形語尾 ‘-로’이 오는 예를 보인 것으로, (가)는 17세기, (나)는 18세기의 예이다. (20)은 17세기에 ‘어렵-’ 앞에 名詞形語尾 ‘-기’가 오는 예를 보인 것이다. 17세기 이후에 ‘어렵-’ 앞에 명사형어미 ‘-디’가 오는 예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15세기와 16세기에 ‘-디 어렵-’과 같은 構文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던 것과 비교할 때 17세기 이후 ‘-디’의 分布가 극도로 縮小되어 적어도 이 用言 앞에서는 消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도 名詞形語尾 ‘-디’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15·16세기에 ‘-디’ 名詞形을 취하던 용언 가운데 ‘슬흐-’만은 17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인다.

(21) 가. 萬事에 보디 슬흐 일이나 이시면 엇덜고 흐니(『捷解』 6:24a)

나. 비록 보디 슬흐 사람이라도(『孟栗』 4:60a)

(21가)는 17세기 자료인 『捷解新語』에 나오는 예이고, (21나)는 18세기 자료인 『孟子栗谷諺解』에 나오는 예로, 17세기 이후에도 ‘슬흐-’ 앞에 名詞形語尾 ‘-디’가 사용된 좋은 증거이다. 하지만 17세기부터는 이미 명사형어미 ‘-기’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18세기로 가면 그 수가 顯著하게 많아진다.

(22) 가. 말슴으로 알외옵기 슬흐시셔든 이 스연을 보옵시게 드리옵쇼셔
(『郭氏諺簡』 42:5)

나. 웃던의 문안 가면 대군의 소리 듯기 슬터라 흐며 (『癸丑』 上:7a)

(23) 가. 또 념불흐기 슬커나(『念佛』 22b)

나. 厭聽 듯기 슬타(『同文』 下:59a)

(22)는 17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기 슬흐-’ 구문, (23)은 18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기 슬흐-’ 구문을 보인 것으로, 後代로 갈수록 ‘-기 슬흐-’ 구문이 一般化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기 슬흐-’ 구문이 ‘-디 슬흐-’ 구문을 대신해 가는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문헌 자료에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이는 名詞形語尾로서의 ‘-기’의 지위가 強化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렵-’과 ‘슬흐-’의 예들이 ‘-디’의 縮小와 ‘-기’의 擴大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음은 ‘-옵-’의 縮小와 ‘-기’의 擴大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13) 用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디’의 縮小는 결과적으로 消滅에까지 이른다. 이 점은 ‘-옵-’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분포의 일부를 ‘-기’에 넘겨주는 과정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24) 그 말이 사름을 의혹게 흐미 쉬운 연피오(『闡義』 3:4b)

(25) 가. 그 初는 알기 어렵고 그 上은 알기 쉬우니 本과 末이라(『周易』 6:28a)

나. 훈디 잇게 흐라 보슬피기 쉽게 흐라(『老諺』 上:52b)

다. 죽고더 흐되 이피 그 일흠을 숨겨시매 엇기 쉽디 못흐니(『闡義』 4:48b)

(24)는 15세기에 많이 사용되던 ‘-호미 쉽-’ 構文이 18세기에도 사용되었음을 보이는 예인데, 이러한 類型은 16세기에 이미 많이 줄어들고 17세기 이후로는 매우 드물어진다. (25)는 ‘-기 쉽-’ 구문의 예들로, 16, 17, 18세기의 예를 차례로 보인 것이다. 이 예에서 보듯이, ‘쉽-’ 앞에 名詞形語尾 ‘-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6세기 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음에는 드물게 나타나던 ‘-기 쉽-’ 구문은 17세기 이후로 점차 그 영역을 擴大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名詞形의 分布가 넓어지면서 ‘-옴’ 名詞形과 서로 분포를 조정하고 共存하게 되는 현상은 ‘동-, 맛당흐-, 올흐-’ 등의 용언에서도 확인된다.

(26) 가. 다만 冠帶흐시미 도홀가 시프외(『捷解』 7:12b)

나. 酒店이 임의 가 놀미 도터 아니 흐니(『伍倫』 1:4b)

(27) 가. 물 고티기 도흐면 아모만도 다 긴티 아니흐니라(『鰾朴』 43a)

나. 紫蘇를 다 시브라 紫蘇란 이 거시 먹기 도흐니라(『朴諺』 中:34a)

다. 이 곳이 ㄴ장 놀기 도흐니이다(『伍倫』 1:3b)

(26)은 ‘동-’ 앞에 사용된 ‘-ㄱ’ 名詞形의 예를 보인 것으로, 각각 17세기와 18세기의 예이다. (27)은 ‘동-’ 앞에 사용된 ‘-기’ 名詞形의 예를 보인 것으로, 각각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예를 보인 것이다. 15세기부터 사용되던 ‘-ㄱ’ 명사형이 여전히 사용되지만 分布가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6세기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기’ 名詞形의 分布가 顯著하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 가. 발열흐는 처엄의 썰리 발표흐여 쏘 내미 맛당흐니(『痘瘡』 上:13a)

- 나. 진실로 숨을 조초미 맛당코(『御內』 2:12a)
 (29) 가. 또 글오더 약 딕기 맛당티 아니하니(『痘瘡』 下:53a)
 나. 숨을 잡기 맛당티 아니하니(『伍倫』 2:4a)

(28)과 (29)는 ‘맛당ㅎ-’ 앞에 名詞形이 사용된 예를 보인 것으로, (가)는 17세기, (나)는 18세기의 예이다. 外形적으로는 (26), (27)을 통해 살펴본 ‘동-’ 構文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동-’ 구문의 경우에는 ‘-ㄱ’ 명사형이 縮小되고 ‘-기’ 명사형이 擴大되는 一般的인 傾向을 보이고 있지만, ‘맛당ㅎ-’ 구문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즉 (28)과 같은 ‘-호미 맛당ㅎ-’ 구문이 16세기 이후에도 매우 높은 頻度를 보이고, (29)와 같은 ‘-기 맛당ㅎ-’ 구문은 17세기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속 낮은 頻度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名詞形語尾 ‘-기’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 분포가 넓어지는 일반적 경향이 모든 경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歴史的 變化에는 항상 例外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2. 名詞形語尾 ‘-ㄱ’과 ‘-기’의 共存 體系

명사형어미의 출현 여부만을 놓고 본다면 近代國語 시기의 名詞形語尾로는 ‘-ㄱ’과 ‘-기’가 共存하고 ‘-기’의 異形態였던 ‘-디’가 消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分布와 頻度까지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ㄱ’과 ‘-기’가 공존하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ㄱ’의 分布가 현저하게 축소되고 ‘-기’의 分布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17세기 이후의 문헌자료에서 ‘어렵-’ 앞에 ‘-ㄱ’ 名詞形語尾가 사용된 예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 앞에 ‘-ㄱ’이 사용되는 것은 15세기에 매우 一般的이었고, 빈도수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16세기에도 쉽게 發見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예를 보기가 어렵고 (20)에서와 같이 ‘-기’ 名詞形語尾가 사용된 예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실제로 ‘어렵-’ 앞에 ‘-ㄱ’ 명사형어미가 오는 마지막 시기는 18세기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狀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쉽-’이나 ‘동-’이 19세기 이후에

도 ‘-ㄱ’ 名詞形語尾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17세기 이후에 ‘어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다른 用言, 예를 들어 ‘쉽-’, ‘뚱-’, ‘슬흐-’ 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즉, 17세기 이후 ‘-디’ 名詞形語尾는 거의 消滅되고, ‘-ㄱ’ 名詞形語尾는 分布가 현저하게 縮小되었으며, ‘-기’ 名詞形語尾는 分布를 持續적으로 擴大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어렵-’의 경우는 물론이고 ‘쉽-’, ‘뚱-’, ‘슬흐-’ 등의 用言 앞에서 ‘-기’ 名詞形語尾가 사용되는 예는 현대국어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편 ‘-ㄱ’ 名詞形語尾의 경우는 ‘-기’만큼 분포가 넓지는 않다. 筆者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상의 네 用言 가운데 17세기와 18세기에 ‘-ㄱ’ 명사형어미를 취하는 용언으로는 ‘어렵-’, ‘쉽-’, ‘뚱-’을 들 수 있지만, 19세기 이후에는 ‘어렵-’의 예가 확인되지 않고 ‘쉽-’과 ‘뚱-’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예만이 확인된다.

한편 16세기까지 ‘-디’ 名詞形語尾와만 함께 사용되던 ‘슬흐-’의 경우는 名詞形語尾의 分布 調整 過程에 대해 示唆하는 바가 크다. 16세기까지 ‘슬흐-’는 ‘-디’와만 같이 나타났지만 17세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기’ 名詞形語尾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어렵-’, ‘쉽-’, ‘뚱-’ 등이 ‘-디’ 이외의 名詞形語尾와도 같이 사용되었던 것과 사뭇 다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6세기까지 ‘슬흐-’는 오직 ‘-디’와만 같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17세기 이후에 ‘슬흐-’는 ‘-디’ 이외에 ‘-기’와도 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¹⁴⁾ 이것은 17세기 이후 ‘-기’가 分布를 확장해 가는 것과 아울러 名詞形語尾로서의 地位를 확고히 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15세기 이후의 名詞形語尾 體系를 검토한 결과 15세기에 ‘-옵’과 ‘-디’로 구성되어 있던 名詞形語尾 體系는 16세기에 ‘-기’의 등장으로 새로운 體系로 調整되고, 17세기 이후 ‘-디’가 消滅되고 ‘-기’가 分布를 넓혀가는 과

14) ‘슬흐-’의 경우에는 17세기와 18세기에도 ‘-디’와 같이 사용되는 예가 있다는 점에서 ‘어렵-’ 등의 다른 용언들과 차이를 보인다.

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現代國語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될 것이다.

	名詞形語尾	名詞派生接尾辭 ¹⁵⁾
15세기	-옵, -디	-기/-이
16세기	-옵, -디/-기	-기/-이
17세기 이후	-ㅁ, -기	-기

17세기 이후의 변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本稿가 補完해야 할 사항이다. 現代國語의 名詞形語尾 ‘-ㅁ’과 ‘-기’의 意味·機能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本稿에서는 이에 대해 거의 다루지 못했다. 名詞形語尾라는 文法範疇에 포괄되는 形態素를 확인하고, 그 形態素 사이의 分布나 한 形態素에 속하는 異形態 사이의 分布 문제에 焦點을 두었기 때문에 意味나 機能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였다. 명사형어미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pp.122~127., pp.149~161.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태학사, pp.45~52., pp.77~168.
- _____(2002), 『조어 능력과 조어법 연구 방법론』, 『언어의 이론과 분석(1)』, 태학사.

15) 名詞派生接尾辭는 本稿의 전체 목적에서 다소 벗어난 주제이긴 하지만, 名詞形語尾 ‘-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에서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파생접미사 ‘-기’와 ‘-이’의 이형태 관계는 17세기 이후에 ‘-기’로 통일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後稿로 미룬다.

- 권재일(1995), 「20세기 초기 국어의 명사화 구문 연구」, <한글> 229, 한글학회, pp.203~232.
- 김승곤(1991), 「이름마디의 통어적 기능고」, <전국어문학> 15·16, 전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pp.465~474.
- 김완진(1976), 『노걸대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원, pp.123~130.
- 김창섭(1983), 「'줄넘기'와 '갈림길'형 합성명사에 대하여」, <국어학> 12, 국어학회, pp.73~100.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pp.113~156.
- 배주채(1998), 「고흥방언의 장형부정문」, 『방언(국어학강좌 6)』, 태학사, pp.495~527.
- 서은아(1999), 「15·16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口, -기' 연구」, <전국어문학> 23·24, 전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 _____(2000), 「17·18세기 국어의 풀이씨 이름법 '-口, -기' 연구」, <겨레어문학> 25, 겨레어문학회.
- _____(2003), 『국어 명사형 어미 연구』, 박이정, pp.33~150.
-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의 형태론」, 『형태론 2-1』, 박이정, pp.1~16.
- _____(2002), 「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p.74~125.
- 송창선(1991), 「부정문에 나타나는 '-지'의 통사 특성」, <문학과 언어> 12, 문학과언어연구회, pp.81~101.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태학사, pp.15~30., pp.126~160.
- 시정곤(1998),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한국문화사, pp.16~19., pp.97~132.
- _____(1999), 「'X+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형태론 1-1』, 박이정, pp.133~142.
- 양정호(2004), 「형태소 개념과 국어사 기술」, <한국문화> 34,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pp.1~19.

- 양정호(2004), 「중세국어의 ‘-기’에 대하여」, <2004 국어학회여름학술대회는 논문집>, 국어학회, pp.76~87.
- 우형식(1987), 「명사화소 ‘-(으)ㄴ, -기’의 분포와 의미기능」, <말> 12, 연세대 언어교육연구원, pp.119~160.
- 이광호(1996), 「명사화소 ‘-기’의 의미기능과 그 기원에 대한 소고」, 『이기문 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pp.773~800.
- 이상욱(2004),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73,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pp.31~52.
- 이승욱(1989), 「중세어의 ‘-(으)ㄴ’, ‘-기’ 구성 동명사의 사적 특성」, 『이정정연찬선생회갑기념논총』, 탑출판사.
- 이익섭(2003), 『국어 부사절의 성립』, 태학사, pp.106~123.
- 이현규(1984), 「명사형 어미 ‘-기’의 변화」, 『유창균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pp.493~520.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pp.87~88., pp.171~226.
- 이호승(2001), 「단어형성과정의 공시성과 통시성」, 『형태론 3-1』, 박이정, pp.113~120.
- 임홍빈(1974), 「명사화의 의미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국어학회, pp.83~104.
- 정주리(1995), 「{-음}, {-기}의 의미 특성과 분포 제약」, <태릉어문연구> 5·6합집,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pp.349~381.
- 차현실(1987), 「명사화 어미 범주 체계화 시론」, <한국문화연구원논총> 52,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pp.71~90.
- 채 완(1979), 「명사화소 ‘-기’에 대하여」, <국어학> 8, pp.95~107.
- 하치근(1999), 「‘-음’ 접사의 본질을 찾아서」, 『형태론 1-2』, pp.359~369.
- 허 웅(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pp.262~265., pp.635~639.
- 홍윤표(1995), 「명사화소 ‘-기」,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 홍종선(1983), 「명사화 어미 ‘-ㄴ’과 ‘-기」,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pp.241~272.

■ ABSTRACT

On the Change of the Nominal Ending System

Yang, Jeong-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historical change of the nominal ending system. This paper consists of the synchronic description of the nominal ending system of the 15th century and the diachronic description of the nominal ending system thereafter. First of all, a discussion of whether the ‘-ki’ in the 15th century is the nominal ending is made. Then the second question, i.e. whether the ‘-ti’ in the 15th century is the nominal ending, is to be dealt. Thirdly, the study is also exploring the synchrony of the nominal ending system of the 15th centu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minal endings, ‘-om’, ‘-ti’ and ‘-ki’. Finally, a further study of historical change of the nominal system and the respective nominal endings is conduc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e that ‘-ti’ was extinguished, ‘-om’ was reduced and ‘-ki’ was expanded in the long-term changing process.

※ Key-words : nominal ending, synchronic system, historical change, extinguishment of ‘-ti’, reduction of ‘-om’, expansion of ‘-ki’